

시끌벅적 e-스타



빅뱅과 손담비 그룹 결성?

'빅뱅과 손담비 그룹 결성?' 빅뱅과 손담비의 히트곡을 적절히 리믹스해 만든 UCC 뮤직비디오가 화제다. 이 동영상은 온라인상에서 25만여건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며 네티즌들의 시선을 모으고 있다.

드 보이'를 작곡한 동감한 형제가 빅뱅의 G-드래곤과 함께 '마지막 인사'를 공동작곡한 것. 리믹스 버전의 뮤직비디오를 본 네티즌들은 "뮤직비디오가 기막히게 멋지다", "지금까지 본 UCC 중 최고다", "색다르고 듣기 좋다" 등 놀랍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또 "빅뱅과 손담비가 마치 한 팀 같다", "이번 기회에 그룹을 결성했으면 좋겠다" 등의 댓글도 올라왔다.

오늘의 유머

■참새 시리즈1

참새가 날아가다 포수의 머리 위에 똥을 썼다. 화가 난 포수가 물었다. "야! 넌 팬티도 안 입냐?" 그러자 참새 왈 "넌 팬티 입고 똥 누냐?"

■참새 시리즈2

두 마리 참새가 전깃줄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포수가 그 중에 한 마리를 맞춰 떨어뜨렸다. 총알에 맞은 참새가 추락하며 하는 말, "왜 나만 싸요? 재두 싸요!" 그러자 총에 맞지 않은, 그 옆에 참새가 말했다. "재 아직 안 죽었네요, 한방 더 싸요!"

■모기의 항변

모기는 암컷만 피를 빨다. 어느 도서관에서 자정이 넘도록 한 학생이 공부에 열중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잠시 쉬려고 펜을 놓았는데 팔뚝에 모기 한마리가 앉는게 아닌가? 그러더니 피를 짹 짹 빨아먹기 시작했다. 귀찮은 학생은 손을 들어 모기를 잡아 치러는 순간...

■김밥 암살사건

어느 날 떡볶이는 분식집 최대 라이벌, 김밥을 암살하기로 하였다. 떡볶이는 오뎅집자에게 김밥을 죽이라고 말했다. 오뎅집은 밤, 오뎅은 자신의 나무꼬치를 다듬으며 김밥이 오기를 기다렸다. 이윽고 김밥이 오자 오뎅은 자신의 갈고 다듬은 나무꼬치를 김밥에 찔렀다. 하지만 오뎅의 나무꼬치가 김밥의 옆구리에 상처도 내지 못한게 아닌가!

오뎅은 놀라서 김밥에게 물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김밥이 말했다. "나 오늘 돌김으로 썼다"

■관계자와 출입금지

어떤 산부인과 한 임신부가 실려왔다.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침대에 실려가는 그 임신부 옆에 남편으로 보이는 듯한 남자가 있었다. "여보!! 여보! 조금만 참아!!" "아아아아아아~~~~" 병원복도를 달려 그 임신부를 실은 침대가 분만실로 들어가자 남편이 같이 들어가려 했다. 그때 간호사가 "관계자와 출입금지입니다. 밖에서 기다려주세요"라고 말했다. 그랬더니 그 남편, 정색을 하며 하는말... "보소, 내가 관계자여, 참내"

■물먹은 청년

수영장에서 한 아름다운 여자가 수면 위에 얼굴을 내밀며 친구에게 한마디 했다. "글쎄 말이야, 내 수영복을 잃어 버렸지 뭐야"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십여 명의 청년들이 물로 뛰어 들었다. 잠시 소동이 있는 다음, 그녀의 친구에게 말했다. "그래서 동생 거 빌려주고 왔어"

■멍거나 멍거나 광고

광고 1. 애인 보관해 드립니다. 군대나 멀리 해외로 장기간 나가시는 분 걱정 마시고 맡겨 주십시오. 돌아오면 새끼까지 쳐서 돌려 드리겠습니다. 광고 2. 흑자 가계부 급히 구합니다. 곧 아내에게 월말 결산해야 할 형편입니다. 고가로 매입하겠습니다. 제 적자 가계부도 무료로 드립니다. 광고 3. 집 팔립니다. 목욕탕이 흰색 내려다 보이는 문화주택. 시력감퇴로 인해 영가에 처분합니다.

리빙 센스 몸매를 살리는 요가⑥

- 앞아서 앞으로 구부리기 신진대사가 좋아지며 식욕이 절제되므로 식욕 과다형에 효과적이다. 복부 다이어트에도 좋고 허리가 뻐신해진다. ① 양 발끝을 모으고 무릎을 꿇 펴서 편안한 자세로 앉는다. ② 상체를 펴고 숨을 멈춘 상태에서 다리와 가슴이 맞닿도록 최대한 구부려준다. ③ 참을 수 있는 데까지 숨을 참고 있다가 내쉬면서 상체를 더 아래로 구부린 뒤 양손으로 엄지 발가락을 당긴다. 이때 팔약근을 강하게 조인다. 무릎은 편 상태로 계속 유지한다. 3회 이상 실시.

知天命이 되는 오늘의 운세 6월 12일(음 5월 9일 癸未)

Table with 12 rows representing zodiac signs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and their corresponding fortune predictions for the day.

Go board game diagram showing a match between 백승열 (White) and 김영수 (Black). Includes a small text box with the date '제17회 광일제' and the title '완벽한 마무리'.

백승열 5단은 아직도 전의를 불태우고 있지만 국면은 비관적이다. 초반 포석도 문제였지만 좌상귀에서 위낙 실점을 많이 한 탓으로 집 차이가 크게 벌어졌다. 반면 김영수 5단은 승리를 굳히고 콧노래가 절로 나오는 형국이다. 백 118로 지키고 124까지 꼭꼭 참아둔 것은 '뒤달만 있으면 이긴다'는 즐거움이 배어 나온다. 예전 작고하신 모 선배기사가 '바둑을 둘 때 어떤 때가 가장 기분이 좋습니까?' 하는 예기기의 질문을 받고 '유리한 바둑을 몰려서 주며 튼튼하게 지킬 때'라고 하던 모습이 떠오르는 상황이다. 백승열 5단은 흑 127로 강렬하게 부딪혀 가며 시비를 걸고 있으나 이미 때늦은 분발로 상대의 외면에 방향을 잃고 헤매고 있다. 김영수 5단은 한가하게 128로 한 점을 때려내며 132로 끊어 139까지 패를 굴복시키고 나서는 144까지 중앙까지 완벽하게 지워 버린다. '바둑이 끝났습니다'하는 선언이다. 백승열 5단은 미련이 남는지 이후에도 상당히 버텼으나 승부와는 관계가 없었다. 김영수 5단의 쾌승이다. 이후의 수순은 흥분을 보기 바란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바둑소식 김중수 지지옥선배 4연승. 김중수 6단이 제2기 지지옥선배 여류 대 시니어 연승대항전에서 파죽의 4연승을 달렸다. 김중수는 11일 서울 한국기원에서 열린 이 대회에서 김해민 5단을 상대로 292수 끝에 2집반승을 거뒀다. 김중수의 4연승으로 시니어팀은 한층 더 여유로워졌다. 여류팀은 루이 9단, 박지은 9단 조혜연 7단만 남은 상태지만 시니어팀은 김중수의 활약으로 무려 8명이나 남았기 때문. 김중수는 12일 조혜연과 대결을 벌인다. 이 대회는 제한시간 각자 10분 30초 3회 덤 6집반으로 진행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굿모닝 잉글리쉬 <1180> We are having trouble finding his house. 저희는 그 사람 집을 찾느라 애먹고 있어요. A: Hello, Chris, this is Mary. B: Where are you? You should have been at John's an hour ago. A: I know. We are having trouble finding his house. B: Okay, let me give you the directions again. A: 이봐요, 크리스, 저, 메리예요. B: 지금 어디야? 한 시간 전에 존의 집에 있었어야 하잖아? A: 그래요, 그런데 저희는 그 사람 집을 찾느라 애먹고 있어요. B: 알았어, 다시 자네한테 약도를 말해주지. \* 잠이 안 와 앓아있느라 애먹고 있어요. = We are having trouble staying awake. \* 그 선물을 싸느라 애먹고 있어요. = We are having trouble wrapping the gifts. \* Let me ~ : 내가 ~할게 \* directions : 약도 <동아 외국어학원 제공> www.donga.tv ☎ 222-6253

오하오우 니혼고 <1180> ご無沙汰(ぶさた)しております。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A: ごめんです。あっ、どうも、ご無沙汰(ぶさた)しております。 B: まあまあ、遠くからようこそいらっしゃいました。 A: 今日はお招(まね)きにあざかりまして、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B: いいえ、何のお構(かま)いもできませんが、お上(あ)がりがください。 A: 실례합니다. 왓,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B: 이런 이런, 멀리서 잘 오셨습니다. A: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B: 아나요, 특별히 차린 것도 없습디만, 어서 들어오세요. ご無沙汰(ぶさた)する: 오랜만이다 ようこそ: 어서 오세요 お構(かま)い: 손님접대 <광주 글로벌 외국어학원 제공> http://kglobal.wo.to ☎ 228-2545

니하오 쑹구위 <157> 我爸爸是警察。 아버지는 경찰이세요. A: 你爸爸做什么工作? Nǐ bàba zuò shénme gōngzuò? 너 아버지 뭐 직업? B: 我爸爸是警察。 Wǒ bàba shì jǐngchá. 어 아버지 경찰. A: 你妈妈做什么工作? Nǐ māma zuò shénme gōngzuò? 너 엄마 뭐 직업? B: 我妈妈是老师。 Wǒ māma shì lǎoshī. 어 엄마 교사. A: 아버지는 무슨 일을 하세요? B: 아버지는 경찰이십니다. A: 어머니는 무슨 일을 하세요? B: 어머니는 선생님이십니다. 敬 [zūn] 하다 工作 [gōng zuò] 일 警察 [jǐngchá] 경찰 <광주중국어학원(상무지구 금호대우A 앞)> ☎ 383-1605

한자 이야기 <797> 綠陰芳草(녹음방초) 푸를 록, 그늘 음, 꽃다울 방, 풀 초 녹음방초(綠陰芳草)는 '나뭇잎이 푸르게 우거진 그늘과 아른답게 우거진 향기로운 풀'이라는 뜻으로, 주로 여름 6월의 자연 경치를 일컬을 때 사용한다. 신록의 계절 5월, 장마를 앞두고 내리는 '녹우(綠雨)'는 사람들의 마음에 사랑을 가져다준다. 또 비운 뒤 숲에서 불어오는 훈풍(薰風)은 부채비바보다 시원하게 느껴진다. 이런 초여름의 풍경을 왕안석(王安石, 1021~1086)은 '초여름에 생긴 일(初夏即事)'이라는 시에서 다음처럼 노래하였다. 돌다리 초가집이 동그런 기슭에 있고 (석랑모옥유만가, 石梁茅屋有彎) 흐르는 물은 졸졸 양 언덕 사이를 지나가네 (유수천천도양곡, 流水澗澗度兩陂) 밝은 햇살 따뜻한 바람에 보리내음 뽕꽃고 (청일난풍생매기, 晴日暖風生麥氣) 푸른 숲 그늘 속 그윽한 풀이 꽃 필 때보다 좋아라 (녹음유초승화시, 綠陰幽草勝花時) 녹음방초는 한편 '춘향전'이나 '심청전'의 관소리나 우리민요에서도 낯익은 계절용어이다. '봄이 왔다가 갈려거든 가거라 니가 가도 여름이 되면 녹음방초승화시라'(사철가) <한예원(韓藝媛)> 조선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 230-7353